

# 『댈러웨이 부인』에서 보이는 소통과 공존의 모색

정경삼\*

- 목차 -

- I. 서론
- II. 거리산책을 통한 소통의 시도
- III. 의식 속의 경계 허물기
- IV. 파티에서의 소통과 공존
- V.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1882~1941)의 『댈러웨이 부인』(*Mrs Dalloway*, 1925)에서 소외와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자아실현 및 소통과 공존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물들의 거리 거닐기와 이분법적 경계의 해체, 파티와 죽음의 의미 등을 통하여 소통과 공존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클라리사(Clarissa)와 셉티머스(Septimus)를 비롯한 중심인물들은 거리 산책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한다. 그들은 거리라는 열린 공간에서 익명성이 주는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자아와 조우하면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

\* 전남대학교

얻고, 자아의 확장을 통해 타인 또는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 과정에서 삶과 죽음, 여성성과 남성성, 집단과 개인 등의 이분법적 대립의 경계가 해체되어 상반된 영역의 구분이 흐려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분법적 대립이 아닌 공존의 길로 나아간다. 또한, 클라리사의 파티는 전혀 다른 타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편견의 벽을 허물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파티가 진정한 화합과 완전한 통일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열린 공간에서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 타인과 교류하면서 자기 인식의 순간을 경험하는 다양한 개인들의 의식세계를 보여준다.

주제어: 버지니아 울프, 델러웨이 부인, 소통, 공존, 거리산책, 이분법적 대립, 경계, 해체, 삶과 죽음, 파티, 의식의 흐름

## I. 서론

울프의 작품에 대한 접근방법은 시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오늘날까지도 끊임없이 새로운 해석과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확장되고 있다. 울프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가장 중점적으로 작품에 담아내려 한 것은 자유롭고 인간적인 삶에 대한 실천 의지일 것이다. 울프는 산업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 그에 따른 삶의 가치관 및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제국주의적 전쟁 등 격동과 혼란의 시기를 살아야 했던 작가로서 인간의 바람직한 존재 양식과 삶의 의미에 접근하고자 한다.

울프는 삶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사회제도와 인습에 의해 정해진 삶의 방식을 따르기 보다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위한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적 해방을 추구하면서도 타인과의 친교의 필요성과 공동체적 삶의 가치 또한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델러웨이 부인』에서 개인의 자유 및 독립의 가치와 소통과 공존의 필요성이라는 상충된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울프의 양가적인 태도가 잘 드러난다. 울프는 온전한 자아가 아니라 분열되고 파편화된 내면의 의식과 외부에서 오는 인상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각각의 인물을 유동적인 주체로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의 설정은 인간성의 결핍이나 완성된 인격체의 불가능성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통과 공존의 필요성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델러웨이 부인』은 사회가 급변하는 시기에 한 개인이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타인 및 사회와 어떻게 교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다양한 형태의 억압에 의해 고립된 채로 존재하는 인물들의 일상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일정한 틀 속에 고정시키지 않고 소통과 공존의 삶을 추구하는 내면 의식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문제들, 즉 삶과 죽음, 정상과 비정상, 여성성과 남성성, 집단과 개인, 순간과 영원, 과거와 현재, 화합과 해체, 공포의 순간과 환희 등 상반된 두 세계를 하나의 이미지로 연결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공동체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인간은 고립과 소외감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단절을 극복하고 서로 소통하고 공존하는 삶을 이루어내야 한다. 한 인간의 정체성은 개별적인 존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질인데 개인의 정체성은 각자가 속해 있는 여러 집단들의 요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각자가 소속된 가정과 사회조직이 요구하는 역할과 그 집단내의 구성원들 간의 인간관계가 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개인

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개인이 속해있는 집단과 인간 관계가 억압의 형태가 되어 개인의 자아를 구성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아의 통일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억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하며 고립되고 단절된 자아에 갇혀 있어서도 안 된다. 개인의 독립성을 지켜내기 위한 자신만의 방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방문을 활짝 열고 열린 공간으로 나가 타인 또는 세상과 소통하고 공존해야 하는 것이다.

## II. 거리산책을 통한 소통의 시도

『달러웨이 부인』의 등장인물들이 살고 있는 1923년 런던은 산업자본주의의 발전과 제 1차 세계대전, 빅토리아조의 가부장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가족관계와 성 정체성의 변화 등, 사람들의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 그래서 작품 속 다양한 인물들 중에서 어떤 이는 경제적 풍요가 주는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어떤 이는 결혼제도의 억압과 획일성 아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또 다른 이는 전쟁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은 채, 자기 자신 그리고 삶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자아의식을 상실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갇힌 공간의 문을 열고 거리로 나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립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타인들 또는 세상과 교류하려고 시도한다. 열린 공간인 거리의 산책은 각 인물들의 짧은 인생여행이라 할 수 있다. 자신만의 울타리를 벗어나 거리를 산책하는 짧은 여행을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탐색하고 결국은 교류의 장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비어(Gillian Beer)는 “작품 속 인물들은 같은 날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조각상과 빌딩, 길에 봉인되었으며, 각 개인이 사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기억 속에 저장된 하나의 공통된 과거의 무게를 그러한 개방된 길을 산책하면서 가볍게 견뎌내고 있다”(53)며, 각 인물들이 런던이라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날을 살아가는 것이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각 인물들의 산책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지위, 가치관에 따라 다른 방식과 의미를 갖는다. 클라리사는 파티 준비를 위한 꽃을 사기 위해 경쾌한 걸음으로 런던 거리로 뛰어든다. 셉티머스는 레지아(Rezia)와 함께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 위해 잠시 남은 시간에 거리를 이리저리 헤매며 방황한다. 피터 월쉬(Peter Walsh)는 5년 만에 인도에서 영국으로 돌아와 클라리사를 방문한 후 자유롭게 거리를 거닐며 돌아다니는 소요자의 모습이다. 엘리자베스(Elizabeth)는 어머니의 파티 준비를 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강압적인 가정교사, 킬먼(Kilman)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홀로 시간을 즐긴다.

런던 거리는 물질문명의 풍요로움과 인간성의 황폐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정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여성들에게는 자유와 해방을 전달한다. 여성에게 거리는 빅토리아 시대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폭넓고 풍부한 세계를 보여주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그래서 클라리사는 “나는 런던에서 걷기를 좋아해요”(5)<sup>1)</sup>라고 말한다. 집을 벗어나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자아를 벗고 무명의 방랑자들의 거대한 공화국 군대의 일부”가 되어 “자신만의 방에서의 쓸쓸함 뒤에 오는 너무나 기분 좋은”상태가 되기 때문이다(Woolf, “Street Haunting” 20). 클라리사는 거리를 산책하면서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는 고립과 통일된 자아의 결

---

1) Virginia Woolf, *Mrs. Dalloway*. 이하 본문에서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함.

핍에서 벗어나 사람들 및 세상과의 교감을 갖는다. 그녀는 거리를 걷다가 다음과 같이 자신의 자아를 모든 존재, 인간과 비인간인 것, 생물과 무생물에까지 확장시킨다.

그녀가 집에 있는 나무들의 일부가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비록 추하고, 온통 잠동사나처럼 짜임새가 없었지만 저기 있는 집의 일부가 되리라, 그녀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일부가 되리라. (8)

클라리사에게 삶이란 서로의 존재 속에서 사는 것이다. 그녀는 고립되어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고 타인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 세상과, 자연과도 교류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클라리사가 거리산책의 경험을 통해 주변의 다양한 삶과 조화를 이루려 했다면, 다락방은 그녀가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자기만의 방’으로 억압적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신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거울을 통해 꾸밈없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한다. 클라리사는 거울을 보며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구성하여 하나의 중심, 하나의 다이아몬드, 거실에 앉아서도 만남의 장소를 만들 수 있는 여인”(32)인 자신의 사회적 자아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깨닫는다. 그녀는 우아한 옷을 입고 파티에서 형식에 맞는 인사말을 나누며, 정치가인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을 잘 꾸려가는 “완벽한 안주인”(6)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래서 클라리사는 여성의 공간인 집을 벗어나 거리에서 새로운 세계의 생기와 활력에 동참하고 소통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공간인 다락방에서 자신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을 구성해 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셉티머스와 레지아는 할리가(Harley Street)의 유능한 의사 브레드쇼

(Bradshaw)와 예약한 시간에 맞춰 그를 방문하기 위해 남은 시간에 거리를 헤매고 있다. 1914년 8월 4일 전쟁이 일어나자 처음에 지원한 사람들 중의 하나인 셉티머스는 전쟁이 끝난 영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한 눈초리를 띄어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이들도 불안하게 한다”(12). 그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분열 증세를 겪고 있어서 세상이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여긴다. 그는 전쟁에서 승진도 하고 참혹한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친구의 죽음과 전쟁의 파괴성이 “감정을 느낄 수 없는”(74) 상태로 만든다. 그는 아내를 포함한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현실의 삶 속에서 소통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울프가 『몽테뉴』(“Montaigne”)에서 “자신과의 소통이 지나는 어려움 너머에는 자신으로 존재해야 하는 최상의 어려움이 있다”(CR 59)<sup>2)</sup>고 한 것처럼, 셉티머스는 현실세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하고 환영 속에 존재하는 자아를 만날 뿐이다.

한편, 피터는 특별한 목적 없이 런던 거리를 한가롭게 거닐며 도시와 사람들을 관찰한다. 그는 열린 공간과 낯선 사람들 속에서 “무모하고 재빠르며 도전적인 모험가”(45), “낭만적인 해적”(46)이 된다.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젊은 여인이 피터의 상상 속에서 실제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이 “젊지만 품위 있고, 명랑하지만 신중하며, 피부가 까무잡잡하지만 매력적인 여인”(45)으로 변모한다. 이는 피터가 지니고 있는 “이상적인 여성상의 진부한 속성”(Bowly, “Walking, Women and Writing” 204)을 보여준다. 이 상상속의 데이트는 피터의 사랑이 상대와의 진정한 소통 보다는 육체적 욕망의 대상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 뿐, 현실에서의 진정한 교류와 소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2) Virginia Woolf, *The Common Reader*. 이하 본문에서 인용은 약자인 CR로 표기함.

킬먼의 거리 산책은 엘리자베스를 백화점에 데려가기 위해 시작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과 마주한다. 그녀는 독일에서 이민 왔기 때문에 영국에서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늘 궁핍한 생활을 한다. 전쟁이 끝난 지 5년이 지났지만 그녀에 대한 계속된 배척이 그녀를 종교에 열광하게 만든다. 명예도 부도 갖지 못한 나이 사십이 넘는 독신 여성은 육체적 욕망을 통제하고 종교를 통해 영혼을 구원받고 싶어 한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자신의 고통을 동일시하면서 편안함을 얻는다. “킬먼의 믿음에 대한 헌신은 세속적인 것을 단념하고 고통 받고 있는 자아에 가해진 고통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Bell 102). 하지만 종교가 킬먼에게 제공하는 위안은 일시적일 뿐이고, 그녀의 자연적인 본능을 억누를수록 화합과 조화 대신에 부조화와 갈등의 상태에 빠진다. 킬먼의 삶은 “타이어가 없는 차바퀴”(110)처럼 어떤 작은 자갈에도 쉽게 흔들린다. 그러나 이 비틀거리는 삶은 비록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노력하는 미숙하고 위태로운 인간의 모습이다.

엘리자베스는 빅토리아 거리에서 버스를 타고 여행을 시작한다. 기존 세대가 모두 걸으면서 산책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신세대인 그녀는 문명의 이기인 속도감 있는 버스를 타고 이동하며, 미래를 꿈꾸는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빅토리아 시대의 관습을 따르는 어머니에게 도전하듯이 직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어머니가 뭐라 하시든지 농부나 의사가 되기로 결연히 결심 한다”(116). 또한 그녀는 스트랜드(Strand) 거리를 거닐며 자신을 “개척자”나 “위험을 무릅쓴 방랑자”로 여긴다(117). 스트랜드 거리는 가난한 셉티머스가 살고 있는 곳으로 델러웨이 가 사람 중 누구도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밭끝으로 살 금살금 들어가듯 조심스럽게”(116) 소극적인 자세로 걷는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녀 혼자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며 파티에 가기 위해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오른다. 엘리자베스는 비록 미

래의 직업을 구체화하려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도 못하고 보호받는 상류층 자제로서의 한계는 있지만, 잠시나마 고정된 자아의 틀을 벗고 세상과 공감대를 확대하려고 노력한다. 그리하여 “엘리자베스의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고정된 정체성에 대한 과도한 갈망을 산산이 부수는 행위가 된다”(Forbes 49). 그녀의 거리산책은 사춘기 소녀가 자신이 머물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과 교류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거리는 자기만의 고립된 영역에서 벗어나 모험과 변화를 제공한다. 클라리사와 셉티머스, 피터, 킬먼, 엘리자베스 등 작품 속 여러 인물들은 거리를 거닐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타인, 사회, 세상, 자연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이러한 소통의 시도를 통해 “집에서 자신만의 독립적인 공간의 가치를 간직하는 한편, 실재하는 것은 자아뿐이고 다른 모든 것은 자아의 관념이거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는 ‘유아론적 공간(solipsistic space)’를 벗어나야 한다” (박은영 243)는 사실을 깨닫는다. 물론 이 교류와 소통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리 거닐기의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며 시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III. 의식 속의 경계 허물기

『델러웨이 부인』은 당시 영국사회에서 지배구조의 주축을 이루는 중심과 주변의 명확한 경계를 해체함으로써 양극화된 이원적 요소들의 공존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 속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의식의 흐름 속에서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집단과 개인, 이성과 감성 등의 상반된 개념들이 충돌하면서 그 경계가 흐려지고 공존하는 순간들이 발생한다.

다. 울프는 특히 계급과 성, 의식의 상태가 전혀 다른 클라리사와 셉티머스를 통해 삶의 진실에 있어서 대조적인 비전을 보여준다. 두 인물에게 삶과 죽음, 여성과 남성, 정상과 비정상 등의 상이한 요소가 투영되어, 상반된 이 두 인물이 ‘분신(double)’ 또는 ‘이중적 자아’로 연결된다. 클라리사와 셉티머스가 서로 분신의 역할을 하며 소통한다는 것은 그들의 긴밀한 관계맺음이 이분법적 경계가 무너져 이원적인 요소들이 만나는 교차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두 인물의 설정은 “울프의 인습타과적인 전제들의 주된 측면을 반영한다”(Ruotolo 145-46)는 점에서, 『델러웨이 부인』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을 창조한 의미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클라리사는 삶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삶의 즐거움과 활기를 느끼며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지만 또한 죽음을 갈망한다. 늙어간다는 사실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역으로 죽음의 유혹을 불러일으킨다. 클라리사는 하늘로 날아오르는 종달새처럼 삶이란 “얼마나 즐거운가(What a lark!)”(3)를 외치다가도 이내 삶에 대한 공허함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 절망에 빠져들곤 한다. 이 상반된 의식은 삶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해 준다. 인생의 한편에는 “어리석은 줄 알지만 신실하게 열정을 바쳐 그런 삶의 설렘을 사랑하는”(5) 클라리사의 삶이, 인생의 다른 한편에는 창밖으로 몸을 내던진 셉티머스의 죽음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인생의 ‘상승과 추락(rising and falling)’의 이미지는 정반대의 개념이지만 동시에 모호한 유사성이 있다. 이 상반되면서 유사한 개념들, 즉 “아래와 위, 추락과 상승, 죽음과 삶, 고립과 소통은 정신의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의 대립 보다는 서로의 거울 이미지이다”(Miller 176). 상이하지만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의 개념들이 거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듯 함께 존재하면서 삶에 이중성을 부여한다.

셍티머스는 “주인공이 투영된 인물로 클라리사가 선택하지 않은 역할, 삶이 아닌 죽음과 정상이 아닌 비정상의 역할을 행한다”(Hite 263). 그는 계급적 배경과 교육에 대한 동경, 정신적 충격, 전쟁의 경험 때문에 현실과 환영이 충돌하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

나는 바다 아래로 들어갔어. 나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 있네. 그런데 나를 가만히 쉬게 좀 내버려둬, 그는 간청했다. [...] 잠자던 사람이 삶이라는 해안으로 끌려가는 것을 느끼듯이, 자신이 삶에 이끌려가는 것을 느꼈고, 태양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외치는 소리는 더 크게 울리고, 무엇인가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58-9)

셍티머스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불안정성으로 인해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을 구성하지 못한다. 삶에 이끌려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고, 결국 감정의 공백상태, 즉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만다. 그는 죄의식 때문에 삶의 균형을 상실하고, 자신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고 인간 본성이 사형을 선고했다”(82)고 믿으며 자살을 선택한다.

그러나 셍티머스의 죽음이 자신의 삶 자체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삶의 의지와 소통하려는 욕구가 강하지만 의식을 중심에 모으지 못할 뿐이다. 현실세계에서의 진정한 소통을 이루지 못한 셍티머스는 창문으로 몸을 던져 자신을 해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구성하고 모으려 한다. 클라리사의 파티처럼 셍티머스가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는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봉헌이기에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삶에 대한 긍정을 의미한다. 죽음이 한편으로는 끝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적인 화합 안에서 위대한 시작을 의미한다. 삶의 한 가운데 죽음이 나란히 존재함으로써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의 공존 현상을 일으키고

이중성의 경계에 틈이 생겨난다.

삶과 죽음의 경계와 함께 작품이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이분법적 대립은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이다. 작품에서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가부장적 억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여성성과 남성성의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결혼생활이나 만족할만한 일체감을 성취하기 어렵다. 특히 가부장적 사회제도에서 “여성은 지금까지 수 세기 동안 남성의 모습을 실제 크기의 두 배로 확대 반사하는 유쾌한 마력을 지닌 거울의 역할을 해왔기”(Woolf, *Room* 45) 때문에 남성들의 우월성에 대한 환상에 기여한다. 거울로서의 정체성을 수행하는 여성의 문제점은 자신을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클라리사는 남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부인의 전형으로 “남편보다 두 배나 많은 지력을 가졌지만 남편의 눈을 통하여 사물들을 보아야만 했다. [...]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졌지만 그녀는 언제나 리처드를 인용해야만 했다”(65).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남성성을 추구하기에 이른다. “다소 몸집이 크고, 남자처럼 정치에 관심이 있고, 시골에 집을 가지고 있고, 아주 위엄 있고, 아주 신실하였으면 했다. [...]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은 존재라는 괴이한 느낌을 받았다”(9). 클라리사는 자신의 여성스러운 외모만이 아니라 여성적 성품을 거부하고 마침내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되어 버린다. 여성들은 당시의 남성중심의 불평등한 결혼제도에서 고립과 소외를 겪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간다.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는 클라리사는 자신이 “더 이상 결혼한 일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갖는 일도 없이, [...] 더 이상 클라리사가 아니다. 이 존재는 리처드 델러웨이 부인이었다”(9)고 느끼게 된다. 그녀는 결혼과 더불어 남편의 성을 따름으로써, ‘델러웨이 부인’이라 불리는 자신의 호칭에 종속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진실한

자기 존재는 없어진 것 같은 느낌에 짓눌려 정체성의 위기를 맞는다.

레지아에게 결혼 전의 이탈리아, 하얀 집들, 그녀의 자매들이 모자를 만들며 앉아 있던 방, 큰소리로 웃어대는 사람들이 북적대던 고향은 “에텐동산”(Abel 90)과 같다. 그런데 셉티머스와 결혼하여 영국에서 산다는 꿈에 부풀어 에텐동산을 포기했지만 영국에서의 결혼생활은 전쟁 트라우마(trauma)로 고통 받고 있는 남편 때문에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다. 고통 때문에 “손가락이 너무 말라서”(57) 결혼반지가 흘러내리고,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틀이 더 이상 그녀와 남편을 연결해주지 못한다. 레지아가 꿈꾸던 영국에서의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환상은 깨지고 만다. 셸리는 “결혼을 언제나 재난”(29)이라고 여기던 자신의 생각을 증명하듯 결혼 후에는 젊은 시절에 간직한 자신의 꿈과 열망에 따라 살지 못하고 현실에 굴복하는 삶의 여정을 따른다. 클라리사를 흥분과 즐거움, 열정으로 들뜨게 했고, 여성들이 참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변혁에 관심이 많았던 셸리는 맨체스터의 부유한 제조업자와 결혼하여 다섯 명의 아들에게 만족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 브레드쇼 부인(Mrs. Bradshaw)은 사진에 대한 열정이 높고, 그녀의 사진은 전문가들의 작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의 권위에 완전히 굴복하여, “소동이나 시끄러운 잔소리도 없이 서서히 물이 배어들 듯이 그녀의 의지가 그의 의지 속으로 흡수된다”(85). 브레드쇼 부인은 자신의 결혼생활에서 “고요한 바다에 정착한”(80) 느낌을 갖는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직 표면에만 존재하고 그 아래는 혼란의 상태에 있다”(Zwerdling 124).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분리는 여성은 물론이고 남성에게도 억압을 가한다. 셉티머스는 남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전쟁에 참전하지만, 전쟁에서 강요된 남성성은 전쟁이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셉티머스를 무기력하게 만든다. 셉티머스는 전쟁에서 남자다

움을 드러내었고 승진도 했으며. 직장 동료들은 전쟁에서 십자 훈장을 받은 셉티머스를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다시 돌아온 현실세계에서 “그의 몸이 분해되어 마침내 단지 신경 조직들만이 남았다”(58)고 느낄 뿐이다. 셉티머스는 섬세하고 감성이 풍부하며 시인을 꿈꾸는 문학청년이지만 남성성을 강요하는 전쟁으로 인하여 감성이 파괴되고 외부세계와 단절되고 만다.

아내를 비롯한 타인과 어떤 교류와 교감을 이루지 못하는 셉티머스는 레지아와 함께 모자를 만들면서 그녀와 진정한 소통의 순간을 경험한다. 리본과 구슬, 인조 꽃 등을 실로 함께 꿰매는 바느질 과정을 공유하며 들은 하나가 된다. 셉티머스와 레지아가 이루어 낸 마음의 통일성은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남성적인 힘과 여성적인 힘이 우리 인간의 내면세계를 관장하고” 있으며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최고의 만족과 가장 완벽한 행복을 이룬다”고 한 “양성적 마음”을 보여준다(127-28). ‘양성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에 대한 이분법적 의식을 뛰어넘어 인간의 보편적인 정신적 해방을 뜻한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허물고 한 개인 안에 여성성과 남성성의 이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즉 ‘양성적 마음’을 받아들일 때 여성과 남성이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 집단의 요구의 수용과 개인의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할 때, 사회 구성원은 강한 압박감을 받게 된다. 작품 속 인물들, 특히 클라리사와 셉티머스는 개인의 영혼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반면, 브레드쇼는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자신과 영국을 번성하게 하였다고 찬양하는 ‘균형’은 사회 내에 존재하는 차이와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고 남성중심의 제국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동질적인 가치를 강요한다. 이질성을 배척하고 획일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것

으로 인간의 영혼을 통제하고 억압한다. 그래서 그의 신은 사회의 부정적자인 셉티머스를 격리시키고 감시할 것을 결정한다. 셉티머스는 사회가 요구하는 균형감각을 잃고 영국사회의 남성 중심적 제국주의적 가치에 위배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클라리사는 킬먼을 “생명의 피를 반씩이나 빨아먹는 망령들, 독재자들 그리고 폭군”에 비유하며, 킬먼의 편협한 사고를 거친 “괴물”이라 부른다(10). 킬먼 자신이 전쟁과 영국사회의 편견의 “희생자이면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희생물로 만들어 억압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다”(Helal 83). 그러나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의 칼날이 오히려 킬먼 자신에게 향하게 되고 그녀를 파괴 한다. 킬먼은 브레드쇼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소유하려 하고, 정형화된 규범을 강요하는 파괴적인 욕망이 있다. 그녀는 비뚤어진 기독교적 해석으로 근거 없는 우월감을 드러내며 타인을 조종하려고 함으로써 종교적 개종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클라리사는 킬먼을 적대시 한다.

울프는 작품에서 삶과 죽음, 남성과 여성, 집단과 개인 등의 이원적인 요소가 대립하는 여러 형태를 제시한다. 하지만 한 개인과 사물, 현상에는 이원적인 요소들이 함께 공존함으로써 이중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런 이중성의 특징이 이분법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고 이분법의 해체가 단순한 중립의 개념은 아니다. 모순적인 이원성의 경계를 어지럽히고, 흐트러뜨려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균형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분법을 해체하여 상반되고 모순적인 이중성이 공존할 수 있는 공백, ‘빈 공간’의 자리를 마련해 보려는 시도이다.

#### IV. 파티에서의 소통과 공존

파티는 중산층 여성들이 무료한 시간을 달라고 화려한 옷을 차려입은 자신의 존재를 과시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이 허용되지 않은 당시 여성들이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다. 클라리사의 파티는 상류층 부인의 속물성과 함께 그녀가 사랑하는 삶 자체와 사람들의 교류와 화합을 위해 “봉헌(offering)”(103)하려는 그녀의 베푸는 능력을 보여준다. 피터는 클라리사가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파티를 열고 “유명한 사람들, 거창한 명사들을 주변에 두는 것을 좋아하는 속물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실제로 클라리사는 계단 맨 꼭대기에 서서 파티를 지휘한다. 안주인의 지휘 아래 파티는 완벽하게 준비되고 “안주인이 가장 아름답운”(32) 모습으로 빛난다. 그런데 클라리사는 파티를 준비하면서 삶에 도취되지만, 내면의 자아는 공허함과 고독을 떨칠 수가 없다. 파티의 주최자인 클라리사는 ‘완벽한 안주인’의 역할만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주 잊어버리고 자신이 계단 꼭대기에 박힌 말뚝인 것처럼 느꼈다. 매번 그녀가 파티를 열 때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145). 이는 당시 여성에게 강요된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하는 중압감과 함께 화려한 파티 이면에 숨겨진 파티의 가식적이고 허구적인 실체를 보여준다.

파티가 갖는 이중적인 의미는 울프가 1925년 4월 27일자 일기에 쓴 파티 의식에 대한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울프는 파티에서 “사람들은 외피를 분비하고 그 외피가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면서도 나처럼 그 외피 바깥에 있는 이물질인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준다”(WD 74)고 말한다. 파티 참석자들은 사회적 자아라는 외피를 분비하여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아를 둘러싼 단단한 외

피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 파티에 참석하는 피터의 태도는 대단히 자기 방어적이다. 그는 마치 사고가 아닌 전투에 임하는 용사처럼 극도의 긴장된 상태로 “영혼은 용감하게 맞서서 참아야 한다”(140)며 주머니칼의 커다란 칼날을 펴면서 파티가 열리고 있는 클라리사의 집으로 들어간다.

또한 클라리사의 사촌인 엘리 헨더슨(Elle Henderson)은 가난한 처지 때문에 클라리사가 자신을 파티에 초대하지 않으려 했다는 느낌이 드는데다,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구석에서 혼자 사람들을 관찰한다. 그녀는 자신이 사회적 외피로 생각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지 못한 열등감으로 인하여 다른 참석자들과 유대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아를 방어한다. 파티에 참석한 젊은 커플, 게이튼 경(Lord Gayton)과 낸시 블로우(Nancy Blow)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너무나 말끔하고 건전해 보이는 경직된 모습을 하고 있다. 브루튼 여사는 파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까만 드레스를 입고 “유령의 보병”(152) 같은 모습으로 나이든 헬레나 패리 양(Miss Helena Parry)의 옆에 서 있을 뿐이다. 클라리사의 고모인 헬레나 패리는 파티가 피곤하고 시끄럽다고 느끼지만 단지 초대받았기 때문에 참석한다. 80세가 넘는 그녀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난초와 인도를 여행하던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에만 빠져있다.

이러한 파티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고립과 대립의 상태에 있는 개인들에게 소통과 공존의 장을 제공하는 파티의 긍정성 또한 분명하다. 먼저, 클라리사에게 파티는 분리되어 있는 개인들을 서로 연결하여 통일성을 이루게 하는 봉헌을 의미한다. 클라리사는 자신이 파티를 여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래요, 그래요, 하지만 당신의 파티들—파티들의 의미가 무엇이

죠?” 하고 말한다면, 그녀가 (아무도 이해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지만) 하나의 봉헌이라는 대답밖에 할 수 없다. [...] 그것은 봉헌이었다. 결합시키는 것이며, 창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봉헌하는 것인가? (103)

클라리사의 파티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베푸는 것이며, 파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클라리사 자신의 삶을 위한 봉헌도 된다. 파티는 클라리사의 결여된 자아에 대한 인식과 분열된 정체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이며, “그녀의 삶에의 완전한 몰두”(Brower 12)를 뜻한다. 클라리사는 결혼 생활의 안전함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의 자율성이 파멸에 이르는 것에 저항하며 진정한 정체성을 찾으려 노력한다. 그녀는 자신만의 공간인 다락방에서 자기성찰을 한 후 용기를 내어 계단을 내려와 일상의 삶과 다시 만난다. 그리고 이 일상의 삶의 중심에 그녀의 파티가 있다.

클라리사의 파티는 사람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클라리사 주변의 현재 인물 뿐 아니라 과거의 인물인 피터와 휴(Hugh), 샬리, 그리고 헬레나 패리 고모도 파티에 참석한다. 파티에는 늙은 힐버리 부인(Mrs Hilbery)을 비롯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화가 해리 경(Sir Harry), 피짜 교수 브라이얼리(Brierly), 그리고 수상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인물들이 모인다. 클라리사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는 인물들, 브루튼 여사와 가난한 사촌 엘리 헨더슨, 브레드쇼 부부도 파티에 모습을 나타낸다. 심지어 파티에 결코 참석할 수 없는 킬먼과 셉티머스까지도 클라리사의 의식 속에서 파티의 손님이 된다.

수상이 파티에 나타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중요한 사건이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의 성역을 기웃거리고 다니는 휴는 수상과 브루튼 여사가 지나갈 때 “발끝으로 걸어 춤추듯이 앞으로 나아가

한 발을 뒤로 하고 인사를 한다”(147). 그런데 피터는 사람들이 “수상이야”를 외치면서 동요하는 모습이 “영국의 속물근성”이라고 비판한다(146).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워커 부인에게 수상의 등장은 자신이 1인분의 음식을 더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상에 대한 울프의 묘사이다. 수상이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고, 그를 카운터 뒤에 세워놓고 그에게서 비스킷을 살 수 있다”고 수상의 모습을 희화적으로 묘사한다(146). 더욱이 수상을 “가없는 사람(poor chap)”(146)이라고 낮춰 부름으로써 실체가 없이 명목뿐인 영국사회의 지배계급을 조롱하고, 당시 영국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울프는 일찍이 자신의 일기를 통해 작품에서 “나는 삶과 죽음, 정상과 광기에 대해 쓰고 싶다. 사회제도를 비판하고, 그 제도가 가장 강렬하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WD 56)고 밝힌 바 있다. 울프의 이런 의도는 파티에서의 수상에 대한 묘사와 클라리사의 의식 속에 간접적으로 파티에 모습을 나타낸 킬먼과 셉티머스를 통해 구체화 된다.

클라리사는 수상이 자신의 파티에 온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느끼며, 수상의 참석이 곧 성공적인 파티의 징후이자 파티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가 수상이 층계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조슈아 경(Sir Joshua)의 그림에서 손에 토시를 낀 작은 소녀가 킬먼을 연상시킨다. 클라리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려는 킬먼을 적대시한다. 그녀는 또한 가난하고 초라한 행색의 이방인이 자신의 딸을 현혹시키고 훔쳐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킬먼을 증오함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그러나 클라리사는 성공적인 파티의 정점에서 불현듯 자신의 증오의 대상인 킬먼을 떠올리고 그녀를 미워하는 것에 대한 자기반성을 한다. 킬먼이 클라리사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닮고 싶은 이상형으로 여기며 자신과 동일화시키듯이, 클라리사 역시 킬먼을 자신의 또 다른 자아로 인식한다. 벨(Vereen M. Bell)

의 의견처럼 “도리스 킬먼이 클라리사의 설명되지 않는 다른 한쪽의 자아를 포함하고”(108) 있기 때문에 클라리사는 킬먼을 통해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소외된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이 타인에 대한 지나친 편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파티의 긍정성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파티에 참석할 수 없는 계층인 셉티머스가 파티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다. 셉티머스는 죽음의 형태로 파티의 손님이 되어 클라리사의 삶에 개입한다. 클라리사가 처음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을 접했을 때는 “내 파티 한 중간에 죽음이라니. [...] 파티의 화려함이 땅바닥에 떨어졌다”(156)며 파티를 걱정할 뿐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혼란과 충격에 휩싸인 채 파티에서 물러나 삶과 죽음에 관해 통찰하면서, 그녀는 남편 리처드와 하인들의 희생 덕분에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셉티머스는 “그의 삶을 던져버렸다”며 죄책감을 느낀다(156). 클라리사는 셉티머스의 죽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회의식에 눈뜨게 되고 그의 죽음과 일체감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녀는 셉티머스의 “죽음은 도전이었다. 죽음은 소통을 위한 시도였다. [...] 죽음에는 포용이 있다”(156)고 그의 죽음을 재해석한다. 죽음이 소통을 시도하는 ‘도전’이고 죽음에는 ‘포용’이 있기에 셉티머스의 죽음이 파티라는 삶 속에 끼어들 때, 클라리사와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역으로 슬픔을 떨쳐버리고 삶은 활기를 띠게 되고 그들의 삶은 계속될 수 있는 것이다.

파티는 이질적인 존재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각 개인들이 인간관계의 벽을 허물고 소통하며 공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장이다. 클라리사의 친구인 피터와 샬리는 파티에서 오랜만에 만나 서로가 많이 변한 모습을 확인한다. 피터는 50이 넘는 나이에 아이들과 아내도 없고 집도, 갈 곳도 없는 외로운 신세다. 샬리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감방 벽을 손톱으로 긁어

대는 “갇힌 수감자”(163)와 같은 삶이 인생의 진실이라며 인간관계에 대해 비판적이다. 피터는 그녀의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 동의하지 않지만 과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옛 친구 샬리와 새삼 일체감을 느끼며 소통한다. 오랜만에 만난 피터와 샬리는 과거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변했지만, 나이가 들어 더욱 “성숙해지고 관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감정의 힘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164).

한편, 일과 조국, 영국에 대한 의무만을 생각하는 리처드는 “아들이 있으면 일하라고 말했으리라. 하지만 그에게는 엘리자베스가 있었다”(96)면서 아들이 없는 것을 아쉬워한다. 평소 엘리자베스와 교감이 없던 리처드는 파티에서 엘리자베스가 성숙한 여인으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고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타인들과의 소통에 서툰 리처드는 마침내 “저 아름다운 소녀가 누구지? 하고 의아해했는데 바로 자신의 딸이었다”(165)며 딸에게 직접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게 되고, 그 말이 엘리자베스를 행복하게 만든다. 리처드가 엘리자베스의 외면적인 아름다움만을 인식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평소 친밀감이 부족한 아버지와 딸이 파티를 통해 서로의 애정을 확인하고 가족 간의 일체감을 획득한다.

이처럼 클라리사의 파티는 자신을 포함한 독립된 개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각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간직하면서도 서로 화합하고 조화를 성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리고 클라리사는 교류와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파티를 주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자신의 이중적인 자아를 통일시키고 비로소 함께 하는 삶, 즉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공존하는 삶이 건강한 삶이고 새로운 생명력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특히 클라리사는 셉티머스의 죽음을 체화함으로써 삶과 죽음, 빛과 어둠, 고립과 포용의 상반된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사라지게 한다. 그녀는 이 이원적인 요소들이 서로 공존하게 되는 것이 삶의 실체임

을 수용하게 된다. 셉티머스의 자살 소식을 듣고 파티 도중에 홀로 작은 방에서 그와 소통함으로써 “죽음의 정화의 필요성은 그녀의 더블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클라리사는 파티로 다시 돌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비전을 완성할 준비를 한다”(Kelley 111). 이 클라리사의 화합의 힘으로 인하여 고독과 소외감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 일상생활이라는 표면 아래 깊은 곳에서 울프의 “터널 작업(tunnelling process)”(*WD* 60)을 통하여 서로 만나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공존하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 바로 클라리사의 파티가 각 인물들로 하여금 표면 아래 깊숙이 영혼의 동굴을 팔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파티는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 여성과 남성, 그리고 계층의 벽을 뛰어넘어 마침내 각각의 동굴들이 연결되어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 V. 결론

울프는 자신의 소설에서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자아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흐르는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삶의 빈 공간으로 자유로이 흘러들어 의식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형성된다는 것이다. 각 인물들이 보여주는 수많은 의식의 흐름이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인식의 폭을 넓혀서 마침내 그들은 화합의 품안에 머물게 된다. 그래서 울프는 화합이란 “즉각적인, 내면적 경험의 능력의 확장”(Mackin 113)이라고 여긴다. 유대관계는 상대에 대한 표면적인 경험을 통해서 단순히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내면에 받아들일 수 있는 더 넓은 포용력, 내지는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외부적 경험이나 타자를 자신의 의식 안에서 즉시 내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

시킬 때 진정한 교류와 화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작품의 인물들은 거리를 거닐면서 삶의 생동감을 느끼게 되고 모두가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인식의 확장을 통해 타인 및 세상과 소통한다. 또한 울프는 이분법적 논리로 분리된 상반된 특징들이 실은 한 인간과 사물현상 안에 공존하고 있으며 그 상이한 요소들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때만이 조화로운 삶이 유지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클라리사는 셉티머스의 자살을 의식 속에서 경험하고 그 순간을 확장시킴으로써 파티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교류와 화합을 이루어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클라리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인식의 확장을 통하여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고, 인물들의 정신 깊숙한 곳에서 일치와 조화, 교감의 순간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델러웨이 부인』이 출간 된지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작품을 읽는 것은 여전히 의미 있는 일이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20세기 초 영국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사회적 문제와 인간의 실존적 존재에 대한 고민은 현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물질문명과 과학의 발달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더욱 소외되고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 서로 소통하며, 빈부의 격차와 성차별, 인종문제, 그리고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공존의식을 갖는 것은 더욱 절실한 문제이다.

진정한 소통과 공존은 각자가 타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그의 행복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주위 세계와 조화를 이룰 때만 가능하다. 한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의 영역이 필요하지만 자신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을 타자화하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간혀 있으면 스스로 고립되고 만다. 타인과 사회, 세상과 소통하고 공존함으로써 비로소 개인의 자아도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고유의 방을 구축하면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의식의 확장을 통해 보다 넓은

세계에서 타인 또는 세상과 대면할 필요가 있다. 『델리웨이 부인』에 나타난 소통과 공존의 가능성은 바로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로 자라난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 모여 이루어지는 숲의 비전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박은영. “Beyond the Gap between Retaining *A Room of One’s Own* and Sharing the Room and the Streets: Virginia Woolf’s Spatial Politics.” 『제임스 조이스 저널』 11.2(2005), pp. 223~47.
- Abel, Elizabeth. “Narrative Structure(s) and Female Development: The Case of *Mrs Dalloway*.” *Virginia Woolf* Ed. Rachel Bowlby. London: Longman, 1992. pp. 77~101.
- Beer, Gillian. *Virginia Woolf The Common Ground*. Ann Arbor: Michigan UP, 1996.
- Bell, Vereen M. “Misreading *Mrs. Dalloway*.” *Sewanee Review* 114.1 (2006), pp. 93~111.
- Bowlby, Rachel. “Walking, Women and Writing.” *Feminist Destinations and Further Essays on Virginia Woolf* Edinburgh: Edinburgh UP, 1997. pp. 191~219.
- Brower, Reuben. “Something Central Which Permeated: Mrs. Dalloway.” *Virginia Woolf*.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1986. pp. 7~18.
- Forbes, Shannon. “Equating Performance with Identity: The Failure of Clarissa Dalloway’s Victorian “Self”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The Journal of the Midwest Modern Language*

- Association* 38.1 (2005), pp. 38~50.
- Helal, Kathleen M. "Anger, Anxiety, Abstraction: Virginia Woolf's "Submerged Truth"." *South Central Review* 22.2 (2005), pp. 78~94.
- Hite, Molly. "Tonal Cues and Uncertain Values: Affect and Ethics in *Mrs. Dalloway*." *Narrative* 18.3 (2010), pp. 249~75.
- Kelley, Alice van Buren. *The Novels of Virginia Woolf: Fact and Vision*. Chicago: Chicago UP, 1973.
- Mackin, Timothy. "Private Worlds, Public Minds: Woolf, Russell and Photographic Vision."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33.3 (2010), 112~30.
- Miller, J. Hillis. "Mrs. Dalloway: Repetition as the Raising of the Dead." *Virginia Woolf*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1986, 169~90.
- Ruotolo, Lucio. "Mrs. Dalloway: The Unguarded Moment." *Virginia Woolf Revaluation and Continuity*. Ed. Ralph Freedman. London: California UP, 1980, pp. 141~60.
- Woolf, Virginia. *Mrs Dalloway*. New York: Oxford, 2000.
- \_\_\_\_\_. *A Room of One's Own and Three Guineas*. Ed. Morag Shiach. New York: Oxford UP, 2008.
- \_\_\_\_\_. *A Writer's Diary*. Ed. Leonard Woolf. San Diego: Harcourt, 1982.
- \_\_\_\_\_. "Street Haunting: A London Adventure." *The Death of the Moth and Other Essays*. New York: Harcourt, 1974.
- \_\_\_\_\_. *The Common Reader*. 1st Series. Ed. Andrew McNeillie. New York: Harcourt, 1984.
- Zwerdling, Alex. *Virginia Woolf and the Real World*. Berkeley and Los Angeles: California UP, 1986.

##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in *Mrs Dalloway*

Jeong, Gyeong-s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cess in which the alienated characters look for their own selves and their efforts for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with others in Virginia Woolf's *Mrs Dalloway*(1925). This paper analyzes the possibilities of communication and coexistence through characters' walking in the street, the deconstruction of the boundary of binary opposition, and the significance of party and death.

Clarissa, Septimus and other characters explore the meaning of life by walking in the street. They get the opportunity of self-reflection as they enjoy the freedom given by anonymousness in the open place like the street, and encounter with the new selves of themselves. And then they try to search the meaning of life by communicating with others or the world through the expansion of self while keeping his/her individual autonomy.

Through a series of this course, the boundary of binary oppositions, such as life and death, femininity and masculinity, and mass and privacy is deconstructed and the contraries are obscured.

Woolf shows that death doesn't exist at the end of life and that life and death coexist through Clarissa's life on the threshold of death and Septimus's suicide. Woolf also says that human being is 'androgynous existence' with the double feature of femininity and masculinity and female and male are not disjoined but correlated. Understandably, the characters in the story long for the self-reliance of private soul and the need for the communication at the same time.

And also Clarissa's party offers the chance for the absolutely different people to alter each other, breaking up the wall of the biases and forming the sympathy. Though the party can not ensure the true harmony and the complete unity, it reveals the conscious world of various individuals who connect with others and experience the moment of self-recognition over own's screen in the open space.

Key Words: Virginia Woolf, Mrs. Dalloway, communication, coexistence, walking in the street, binary opposition, boundary, deconstruction, life and death, party, the stream of consciousness

이 논문은 2013년 1월 30일 투고되어 2013년 2월 15일 심사 완료하였으며, 2013년 2월 20일 게재 확정되었음.

